

어촌뉴딜 300사업 공모 선정 쾌거

어촌 주민 삶의 질 제고 어항 재생·혁신성장 견인

전북도는 해양수산부에서 혁신성장을 견인할 정책과제 중 하나로 공모 사업인 '어촌뉴딜 300사업'에 도내 5개소, 581억원 최종 선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어촌뉴딜 300사업'이란 국민소득 3만불 시대에 걸맞게 300여개의 어촌 어항 현대화를 통해 해양관광 활성

화와 생활 밀착형 SOC 정비 등을 통한 어촌주민 삶의 질 제고 및 어항 재생, 국가 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사업이다.

2019년 70개소를 시작으로 2022년까지 총 300개소를 조성하는 '어촌뉴딜 300사업'은 지난 9월 지자체 설명회와 대상지 선정 공고 절차에 따라 총 70개소 선정에 전국 지자체에서 143개소가 공모 신청을 했다.

도에서는 군산 2개소(무녀2구항, 명도축), 고창 1개소(동호항), 부안 3개

소(대리항, 식도항, 벌금항) 등 총 6개소를 선정하여, 서면 평가와 현장 평가를 거쳐 5개소 581억원이 최종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2019년 공모에 선정된 70개소는 2019~2020년까지 개소당 90억원~150억원 정도를 지원받아 어촌이 보유한 핵심자원을 활용하여 차별화된 콘텐츠를 발굴하고, 어촌·어항 통합개발을 통하여 해양관광 활성화와 어촌의 혁신성장을 견인하여 어촌지역의 활력을 도모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전북도 김대건 해양수산과장은 "어촌·어항의 정주여건 개선을 통한 새로운 소득원 창출 및 지속발전 가능한 활력 넘치는 어촌·어항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며, 지역주민들의 꾸준한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가 사업의 성공여부를 결정한다"는 당부와 함께, "내년 5월경 예정된 20년도 어촌뉴딜 300사업 공모 준비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국가적 참여열기 확산 위해 범도민 운동 기지개

세계잼버리 서포터즈 발대식 14개 시·군 381명 참여 SNS 통한 잼버리 소식전파

전북도는 18일 도청에서 잼버리 붐 조성과 참여열기 확산을 위한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서포터즈' 발대식을 열었다.

잼버리 서포터즈는 사)2023 새만금세계잼버리 범도민지원위원회가 앞장서 모집했으며, 14개 시군에서 초·중·고, 대학생, 교사, 농업, 예술인, 전문가 등 381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발대식에는 김동수 사)2023 새만금세계잼버리 범도민지원위원회 이사장을 비롯해 송하진 도지사, 국주영은 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 정병익 도교육청 부교육감, 김문덕 한국스카우트 전북연맹장 등과 서포터즈 200여명이 참석했으며, 잼버리 설명, 서포터즈 활동 교육, 위촉장 수여, 희망 메시지를 담은 종이비행기 날리기와 축하 공연 등 서포터즈 본격 활동을 알리기 위한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됐다.

이번 발대식을 시작으로 서포터즈는 페이스북, 트위터, 블로그 등 주로 SNS를 통해 잼버리 소식과 행사, 생생한 현장의 모습을 공유하는 등 잼버리 성공개최의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구체적인 서포터즈 활동을 위한 로드

맵도 마련됐다.

2019년에는 서포터즈단 새만금 잼버리장 방문, 서포터즈 활동사례 경연대회를 개최해 잼버리 및 서포터즈에 대한 이해도를 도모하기로 했다.

또한 도내 주요 행사축제 시, 신선한 아이디어로 잼버리를 홍보하고 잼버리 영의 체험활동도 발굴할 계획으로 오는 10월 최종보고회를 통해 우수 서포터즈 시상과 활동 성과도 공유할 계획이다. 서포터즈 참가자들에게는 사)범도민지원위 주관 각종 행사에 우선 초청되며,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정보제공과 활동 우수자 시상, 서포터즈 활동복 지급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될 예정이다.

범도민지원위는 2023년까지 매년 서포터즈를 모집해 총 2,023명을 선발하고, 한국스카우트연맹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2023 세계잼버리 개최시 자원 봉사자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사)범도민지원위 김동수 이사장(군산상공회의소 회장)은 "이번에 모집하는 잼버리 서포터즈는 어린이, 청소년, 일반인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국민 모두가 한마음 한 뜻이 될 수 있는 기폭제"라며 "잼버리 성공개최에 대한 열정을 국내는 물론 세계인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열심히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전북체육특별대상' 시상식 성황리 열려

전북 체육인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한 '2018전북체육특별대상' 시상식이 18일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대강당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올해 전북체육특별대상 시상식에서는 제99회 전국체전에서 종합별 종합우승을 차지한 전북정규협회 소속 정구선수단이 단체상을 수상했으며 전북체고 세단뛰기 유규민 선수가 개인상을, 전북정규협회 홍정현 총감독과 전북체고 이순철 육상 감독이 각각 지도자상을 받았다.

이날 시상식에는 송하진 도지사, 김양원 전주부시장, 김택수 전북도민일보 회장, 임환 전북도민일보 사장, 이선홍 전주상공회의소 회장, 장영달 우석대 총장, 김동진 전북체육회 부회장, 최영원 전북체육회 사무처장, 윤석정 전북일보 사장, 이열범 전북 CBS 본부장, 임양순 전북여성단체협의회 회장, 임귀례 전북친절봉사회 회장, 임귀례 전북친절봉사회 회장, 유재도 전북농협 본부장 등이 참석해 전북 체육을 빛낸 영웅의 일곱들을 축하했다.

전북체육특별대상 단체상을 수상한 전북정규협회 정구선수단은 지난 10월 전북에서 열린 제99회 전국체전에서 종합우승을 차지한 것을 비롯해 올해 국가대표 3명(여교부)을 배출하는 등 큰 성과를 냈다.

또한 대통령기 전국정구대회에서 일반부 개인전 우승과 남교부 단체전 준우승, 문체부장관기 초등학교대회에서 단체전 우승(순창초), 대한정구협회장기대회 상위 입상 등 발군의 실력을 과시하며 전북 체육의 명예를 한껏 빛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인상을 받은 전북체고 유규민 선수는 고향 전북에서 열린 제99회 전국체전에서 세단뛰기에 출전해 월등한 실력으로 금메달을 차지했을 뿐만 아니라 대회 신기록(16.23m)도 작성했다.

/정은성 기자



전북도와 인구보건복지협회 전북지회가 가족친화 사회분위기 조성과 아이키우기 좋은 전북을 만들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사진=인구보건복지협회 전북지회 제공)

저출산 극복! 시민사회 종교·교육·의료계가 함께

전북도 저출산 극복 사회연대회의의 3차 정기회의 개최

전북도와 인구보건복지협회(전북지회)는 18일 전북도청 중회의실에서 올해 사업 결과에 대한 개선방향 및 기관별 추진상황을 공유하고자 '전라북도 저출산 극복 사회연대회의'의 3차 정기회의를 했다.

2016년 출범한 전라북도 저출산 극복 사회연대 회의는 저출산 극복의 중요성을 사회적으로 공론화하고, 전북지역 결혼 출산 가족친화 캠페인 및 프로그램을 개발, 시행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경제계 교육계 언론계 종교계 의료계 시민사회계 등 25개 단체로 구성되어 있다.

지난 5월과 9월에 이어 올해 세 번

째로 열린 이번 회의에는 한 해 동안 추진한 저출산 극복 인식개선 사업의 추진성과를 발표하고, 남성의 적극적인 육아 참여를 위해 기획한 '아빠와 함께하는 소풍', '찾아기는 남편교실' 프로그램에 144가족 453명이 참여하여 아빠와 자녀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청년층의 인식개선을 위해 운영한 '인구 서포터즈'는 도내 4개교 116명의 대학생과 1개교 22명의 고등학생이 참여해 인구문제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연대회의에 참여한 단체별로는 ▲ 종교계에서는 혼인전 교육 및 생명

나눔캠페인 ▲의료계에서는 난임 및 한의약사후간담관리 ▲언론계에서는 정책 홍보와 인식개선 캠페인 ▲시민사회계에서의 임신부 배려 프로젝트 등을 진행하여 임신 출산 양육 친화 분위기 조성을 위한 활동상황을 발표했다.

김송일 도 행정부지사는 "지난해 전북의 합계 출산율은 1.15명으로 전국 평균 1.05명보다는 약간 높은 수준이지만 대체 출산율 2.1명에는 미치지 못한다"며 "지자체 종교계 기업 시민사회 등 각 사회주체들이 실질적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결혼 출산 가족 친화적 사회분위기가 조성되도록 지역사회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김진성 기자

'잇단 가스누출' ... OCI 군산공장 위반사항 무더기 적발

잇단 가스누출 사고를 일으킨 OCI 군산공장에 대한 합동점검에서 위반사항이 무더기로 나왔다.

새만금지방환경청은 지난달 28일부터 최근까지 합동점검을 벌인 결과 43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환경청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적정 관리 여부, 영업 인·허가 사항, 위해관리계획서 이행실태, 수질 등 환경시설 전반에 대해 집중 점검했다.

그 결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자

체점검 미이행 등 4건을 고발하고 포스텐 탱크 지지대 균열 등 31건 개선명령, 대기방지시설 고장·훼손 방지 등 8건 과태료 처분할 계획이다.

이러 사고 방지를 위해 CCTV 설치와 화재위험 요소 개선 등 80건을 개선권고 할 예정이다. 특히 지난달 21일 사업화구소 누출 사고 당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제대로 점검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돼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뉴스이

전북기술지주회사, 125억 규모 투자조합 결성

주)전북지역대학연합기술지주회사(이하 JB기술지주회사)는 총 125억 원 규모의 미래 ESV 투자조합 제1호를 결성하고, 도내 기업투자에 나선다.

JB기술지주회사는 지난 11월 한국모태펀드 최종운영사로 선정된 후 12월 18일 조합원 총회를 통해 결성된 바 있다.

미래 ESV투자조합 제1호는 고려대 기술지주회사와 공동 운영사로 운영하게 되며,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대우전자부품, 세진메탈 등이 참여했다.

이번 투자조합의 결성은 도내 유일한 투자전문회사로 전북도내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벤처기업에 자금을 공급하는 최초의 투자펀드라는데 그 의미가 있다.

미래 ESV 투자조합은 향후 8년간(투자기간 4년) 혁신성 및 성장성을 보유한 소셜벤처기업 및 지역 중소벤처기업에 투자할 계획으로 도내 투자금융 시장 및 기술창업이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보인다.

/김진성 기자

원광대학교
WONKWANG UNIVERSITY

시골아있네!

원광대학교

창업선도대학 | 1학과 1특허 1기업 창업 프로그램
아시아 중심대학 | 아시아 중저시장 개척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대학 | 국내 대학 최초 ISO 26000 (사회적 책임 국제표준) 획득
경쟁력 있는 대학 | 정부 재정지원 사업 1,307억 수주(전국 상위권)

2019학년도 정시모집 원서접수(가/나/다군)
2018. 12. 29 (토) ~ 2019. 1. 3 (목) ☎063-850-5262, 5266(입학관리과)

프로그래밍 사업 대학 (신원경 교육혁신부 선도대학) |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CX-1) | 사회공헌형 대학(인하대,인도대,INC) | 기업형 창업 선도대학 ISO 26000 | 이공계수준 최고등급 취득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ijmaeil.com